

그 옛날 동복리는 무촌(無村)이랑수다 헌디. 서김녕(西金寧) 밀양 박댁(朴宅) 하르바님이~ 세 경땅에 농서 농업을 지여놓고 맷걸름이 없어지연 허난~, 이 동복 지경에~ 듬북¹⁾ 허레 물떼 맞 추완 오라근. 듬북을 허며 모른 밧드레 널단 애가 쿤쿵 몰라집데다. 물이 졸졸 누리는 꽃을 간. 엎더지여 물을 뺏아먹은 것이. [*불청*] 박씨 하르바님 듬북 허레 옵디다. 듬북 허레 오란. 그날 헌 건 널고 아시날²⁾ 오후 저녁 헌 건, 지어 앗언 또로 밧디 간 부려된 집이 간 잇단. ?만?만 생각을 허난-, 이예- 하르바 박씨 하르바님 혼자만 이 부락에 질 먼저 오란 엄막³⁾ 지언 삽데다 글지 후에⁴⁾ 훈 사람 두 사람 오라 메와지는 게, 그 옛날은 삼백 여 호가 뒤엿수다 헌디~, [요령] 어- 글지 후, 이예 부락에, 육상 해상에 풍화(風波)가 지언, 필연곡절(必有曲折) 이상하다. 구석구석 모을 도량(道場)을 막 돌단, 저 겟것⁵⁾ 바위⁶⁾ 네려간 보난, 난데없는 소방상 상여화단이 이옛- 올라십데다. 필연곡절 이상하다 영 허여-, 그 상여화단을 부락 안네 거리 가운데 갖단 이 예 놓디다 놓안 그떼 정월 초사를 초일궤~. 위망 적선을 허난 펜안허단 또로 이삼년 후엔 부락 주손덜이 그만 돈데무심허여 갑데다~. 돈데무심을 허는디~ 또로 부락에 풍파가 지어가난, 이예- 정월 초일궤 삼월은 나민 열일궤-, 또, 칠월은 나민, 칠월도 여릴궤, 구월들도 음력으로 여릴궤, 영 허여 일년에 봄 농서 농업, ?세문안, 이예- ?을~ 마블림 농서 농업 ?세문안~, 일년에 네 번을 뎅기는디 어떻 허연-, 상여하르바님하고 할마님하고 훈밧디⁷⁾ 좌정(坐定)허연 상(床)을 받단, 할마님은 그만 모을 순력(巡歷)사 돌레 나가신디 어떻사 허여신디 모르쿠다 헌디 어디 잔칫집인가 오꽃⁸⁾ 간 남포리⁹⁾ 알 닉발공상¹⁰⁾ 국물인가 궤진가 훈 점 얻어앗언 오란~, 헌 것이 하르바님은 냄세가 나젼, 할망?라¹¹⁾ 오렌 허연 주끗디¹²⁾ 오난 “무신 거 먹언단?” 허난 “아무것도 아이¹³⁾ 먹엇수다.” “어떻 허연 종경네도 남져 비린네도 남덴.” 영 허연 헌 것이~ “아이고 어 디 간 저 국물 훈 적¹⁴⁾ 얻어먹엇수던.” 허난, 옛- 그떼에, 상여하르바님은 그냥 거리 안에서 상을 주순(子孫)드레 받으나 받고, 할마님은 부름 알로 네려사는 것이, 굴묵~ 밧으로 네려사근, 헤녀(海女)더레 어부(漁夫)더레 추질 허고 남포리 알 닉발공상도 받곡 허엿수다 헌디 어~, 글지 후, 일본 한국 합방뒈연 일본사름 한국사름 일본 갈 적엔디~, 그만 일본사름덜이 당도 부수라 절도 케우라¹⁵⁾ 영 허여가난 큰일낫져~. 동네 평산 신칩잇 할마님-, 또로-, 풍천 임칩잇 할마님, 또 강칩잇 할마님이, 나산~¹⁶⁾ 이예 어떻 허민 좋고~. 이옛- 영 헌 게 거창 신칩잇 하르바님은

1) 듬북 : 뜰부기. 바다풀의 일종.

2) 아시날 : 전날.

3) 엄막 : 음막.

4) 글지 후에 : 그 뒤에.

5) 겟것 : 갯가.

6) 바위 : 가장자리.

7) 훈밧디 : 한 군데. 한 곳에.

8) 오꽃 : 그만.

9) 남포리 : 부춘돌.

10) 닉발공상 : 사족공신(四足恭神). 소나 돼지 따위 네발 동물의 고기를 먹음.

11) 할망?라 : 할머니에게.

12) 주끗디 : 가끼이.

13) 아이 : 아니.

14) 훈 적 : 한 입. 한 모금.

15) 케우라 : 태워라.

16) 나산 : 나서서.

이 본향 앗일 디 울따리를 들르肯 허연 들르곡~, 아이고 저 북촌 고씨 선생앞이 간 본향을 웅겨 도렌¹⁷⁾ 허난, 난 나라에서 통정대부(通政大夫) 직함(職銜)을 받안 난 설러부난¹⁸⁾ 난 강 못 헌덴 영 골으난,¹⁹⁾ 게민 어떻 허리 그떼에 홍씨 할마님 홍씨 선생가, 게민 나 하르방 데토로²⁰⁾ 가근에 허여주肯 허연 앞사고²¹⁾ 영 허여 저 거리 안네 잇인 본향을 이 소금막으로 웅겨 오랏수다~. [요령] 웅겨 오란 각 성친덜, 문²²⁾ 나산, 부름웃도 상여하르바님을, 위망적선허는디 막끗데옌²³⁾ 이 예 홍씨 선생님이 이예 상단궐 주손 나이 많은 주손덜이우다. 중단궐 중청년 주손 하단궐 아이~ 옛- 영 허연 제비를 딱 받안 보난, 산을 받고 보난 벽마강(白馬江) 얼음찔이라 아이고 이 부락에 큰일낫져. 젊은 청년덜 다 죽어불민 어떻 허코~. 어느 왕에 등장(等狀) 들리. 부락 유지 이장앞이 이논(議論) 공론(公論)허여 우리 인생은 어둔 디서 붉혀야만이 사는 법이랑~, 명부 데신시왕 십전데왕 삼맹감 청허영 그 앞으로 엑덜을 막으렌 영 허연 허난~, 이예- 그때에 엑을 막아산 죽을 청년덜 문짝²⁴⁾ 살고 부락 펜안(便安)허여 오는 게 뒷헤부떠는~, [요령] 계속- 예 본향엔 본향 부름웃도, 상여하르바님에 억만 육궤 못고, 또 이젠은 부름알또 상여할마님엔 요왕(龍王) 추지허던 어부광 헤녀덜이 이예 삼월 초으드렛날 데제일로~ 또 이전~, [요령] 위망 적선을 허여 옵디다 헌디 ?만써²⁵⁾ 부락에서-, 생각을 허난 이건 아이 웨켜. 야 이거 훈 무실에서²⁶⁾ 반 갈라지엉이, 이거 본향하르방 할망 뜨로 위망 적선을 허게 웨난 아이 웨肯 허연 부름알또 상여할마님도 신청 ?리메²⁷⁾ 담 다완²⁸⁾ 예 동세벽²⁹⁾ 모삿수다³⁰⁾ 모사놓고 헤년마다 홍씨 선성님 후로 정씨 선성, 박씨 김씨 선성님네 산 떼??지도~ 이예- 본향 데제일엔 데신왕을 청허영 꼭 이 엑을 각 성친 주손덜 막아온 유전 풍속이 [요령] 웨여지여 삽네다 허난~.

강정식, 『동복리 본향당굿』, 문화체육관광부·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, 2011, pp.170-173.

-
- 17) 웅겨도렌 : 옮겨달라고.
 - 18) 설러부난 : 그만두어버리니.
 - 19) 골으난 : 말하니.
 - 20) 데토로 : 대신.
 - 21) 앞사고 : 앞장서고.
 - 22) 문 : 모두.
 - 23) 막끗데옌 : 마지막에는.
 - 24) 문짝 : 모두, 남김없이.
 - 25) ?만써 : 가만히.
 - 26) 무실에서 : 마을에서.
 - 27) ?리메 : 가림막.
 - 28) 다완 : 쌓아.
 - 29) 동세벽 : '동쪽' 정도의 뜻.
 - 30) 모삿수다 : 모셨습니다.